

# 전북 기업심리 개선 속 체감경기는 '엇갈림'

### '수익성 악화·비용 상승·경기 불확실성' 여전히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

전북지역 기업심리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경기 체감과 향후 전망은 업종별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제조업은 지표상 개선 흐름을 이어간 반면, 수익성과 자금 여건 악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3월 전북지역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9.1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제품재고와 업황, 생산 지표가 개선되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다만 4월 전망지수는 98.1로 제자리걸음을 하며 기대감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 폭이

컸다. 3월 기업심리지수는 81.8로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했고, 4월 전망 역시 같은 수준까지 올라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자금사정과 업황, 채산성 개선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보다 뚜렷한 온도차가 나타난다. 제조업 업황BSI는 67로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전망은 오히려 하락해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과 매출은 증가했으나 신규 수주는 감소했고, 특히 채산성과 자금사정은 각각 큰 폭으로 악화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도 두드러졌다. 제조업의 원자재 구입가격 지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채산성 지수는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제조업은 업황과 자금사정이 개선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업황BSI는 상승했고, 채산성과 자금사정 역시 개선세를 나타냈다. 다만 4월 업황 전망은 다시 소폭 하락해 낙관론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경영 애로는 여전히 '내수 부진'이었다. 제조업에서는 내수 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뒤를 이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은 전월보다 크게 확대됐다.

비제조업 역시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다만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부담은 다소 완화된 반면, 자금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증가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북지역 기업심리는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와 비용 상승,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26일 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시단법인 농진중앙회 '전주농진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 '전주농진회' 공식 출범

### 농촌진흥청, 퇴직 공무원 중심 전북 농생명 산업 지원

농업 발전을 이끌어온 퇴직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전주농진회'가 공식 출범하며 전북 농생명 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역할을 예고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6일 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시단법인 농진중앙회 '전주농진회' 창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라승용 농진중앙회장을 비롯해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중앙회 관계자와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창립 취지와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농진중앙회는 1982년 퇴직 공무원의 상호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출범한 단체로, 현재 수원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지역 농진회와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며 1천여 명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전주농진회는 농촌진흥청 호남 지역 퇴직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창립 이후 5월 총회를 거쳐 조직을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농진회는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이끈 농업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와 연계해 기업과 농업 현장에 대상으로 전문 기술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전북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 호남지선 노산~양촌IC 구간 차로 축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강청교 개통 위한 교통 전환 실시

한국도로공사가 호남지선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로를 축소 운영하며 교통 전환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개축이 완료된 강청교 개통을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3월 31일 오후 6시부터 4월 1일 오후 2시까지 노산에서 양촌IC(대전 방향) 구간의 편도 2개 차로를 1개 차로로 줄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면 개축이 완료된 강

청교를 개통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공사 측은 임시도로와 본선 교량을 각각 1개 차로씩 순차적으로 전환해 차량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차로 축소로 인해 정체가 발생할 경우 우회도로 이용이 권장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4.5톤 미만)은 노산IC로 빠져

져나간 뒤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인 양촌IC로 재진입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노산IC에서 진출해 국도와 지방도를 이용, 계룡IC로 우회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과 우회 경로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로드플러스 홈페이지와 고속도로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강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서며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임실군 섬진강댐 운암취수구와 정음시 낙양취수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임실군 등 관계기관과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내 농업용 저수지 20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긴급 대응 후 신속히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며 금융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27일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함께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길환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김제시지부, NH농협은행보통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람의 쌀 300kg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

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전 국민으로, 총 100만 명에게 무료 가입이 제공될 예정이다. 가입은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NH윌뱅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하며, 보장 한도는 각각 최대 1천만 원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농협, 농축협 상임이사 전략회의 가져

전북농협이 농축협 경영 내실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전략 논의에 나섰다.

농협 전북본부는 지난 27일 도내 농축협 상임이사들을 대상으로 '2026년 농축협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과 농업 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농축협의 대응 전략과 사업 추진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농축협 전문 경영인으로서 농업인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실의 증진



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심전심 운동'에 국민적 참여를 호소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연구개발특구 혁신기업 성장

###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견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있다.

특구재단은 연구개발사업(R&D), 투자 연계,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기업들이 매출 확대와 재투자를 동시에 추진하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지방세 혜택 등은 기업 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특구 1호 첨단기술기업인 데크카본은 초고온 경량 탄소복합재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최근 5년간 매출이 약 1.6배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은

물론 국가탄소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까지 이어지며 지역 대표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나노솔루션 역시 특구 투자 연계를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다. 탄소나노튜브 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소재 공급과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공장 증설 및 성장 추진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구소기업인 다이나믹인더스트리도 특구의 집중 지원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초기 소규모 투자에서 출발해 연속적인 후속 투자 유치가 성공했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대규모 계약 추진과 공장 확충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특구 기업들은 단순한 지원 수혜를 넘어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을 동시에 늘리고 있다. /오상근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